

韓國 所在 佛教 教藏文獻의 書誌調查

A Bibliographical Investigation of Buddhist Gyojang literature in Korea

남 권 희 (Nam, Kwon Hee)*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律書의 註釋書 |
| 2. 經書의 註釋書 | 5. 맺음말 |
| 3. 論書의 註釋書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연구는 2015년 고려제종교장 학술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일 소재의 教藏에 대한 서지조사 가운데 한국 소재 교장을 經·律·論書의 註釋書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교장은 총 40건이 확인되었으며, 서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별로 高麗 16종, 朝鮮 14종이다. 經書의 주석서는 고려와 조선 각각 6종이며, 論書의 주석서는 고려 6종, 조선 5종이며, 律書의 주석서는 고려 2종이다. 이외 目錄類가 고려, 조선 각각 2종이 있으며, 기타 1종은 조선에서 간행된 것이다.

둘째, 간행 및 인출 시기별로 살펴보면 고려시대는 11c 1건, 甲辰·乙巳·丙午·丁未歲의 재조대장경 후쇄본 11건, 고려시대 4건, 20c 후쇄본 2건, 연대미상 2건이 있다. 조선시대는 15c 2건, 16c 1건, 16c 추정 1건, 17c 6건, 18c 3건, 19c 1건, 조선시대 1건, 19c 말-20c 초 후쇄본 1건, 20c 후쇄본 1건, 연대미상 3건으로 구분된다.

셋째, 간행 판본별로는 木板本 36건, 筆寫本 3건, 金屬活字本(乙亥字) 1건이다. 고려시대의 경우 20건 모두 목판본이며, 재조대장경 판본 11건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시대는 목판본 12건, 필사본 3건, 을해자번각 후쇄본 4건과 금속활자본(을해자) 1건이 있다.

要語: 教藏, 경서, 율서, 논서, 주석서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hnam@knu.ac.kr)

접수일: 2016년 5월 25일 최초심사일: 2016년 6월 14일 심사완료일: 2016년 6월 25일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as a part of Gyojang research fulfilled by The research institute of Tripitaka Koreana in 2015. So in this study we tried to bibliographically investigate all the Gyojang remained in Korea, China and Japan. The quantity, the status and the bibliographic features of them were gathered and organized. As a result we could find out 40 volume of Gyojang were remained, and the bibliographic features as follows ;

1. In the times of engraving period, 16 volumes of books were engraved in Goryeo period and 14 volumes in Chosun Dynasty. The annotation books of Gyeongseo which were Buddhist Scripture was 6 volumes in both periods, and Nonseo commentary books of Buddhist scripture was engraved in 6 in Goryeo and 5 in Chosun period. The annotation books of Yeolseo was 2 volumes in Goryeo. Besides cataloging books were remained 4 volumes in each periods, and the rest 1 volume was made in Chosun period.

2. The distribution of engraving and printing time, there were 1 volume in 11th century, the reengraving of the Tripitaka Koreana was 11 volumes, 4 volumes in Goryeo Dynasty, 2 volumes in 20th century and 2 volumes could not identify the publishing time. In Chosun period, the printing time distributions were 2 volumes in 15th century, 1 volumes in 16th century, 1 volume was estimated in 16th century, 6 volumes in 17th century. And 3 volumes in 18th, 1 volume in 19th, and 2 volumes in 20th century. The rest 3 volumes were unknown.

3. In the methods of publishing, 36 volumes were engraved in woodblocks, 3 volumes were transcribed and 1 volumes made by metal type called EulHaeJa. In Goryeo period, all the volumes of 20 were engraved in woodblocks and 11 volumes was the Tripitaka Koreana. In the distribution of Chosun period, 12 volumes was engraved ones, transcribed 3 volumes, 4 volumes of reengraving metal type and 1 volume of metal type.

Key words: Gyojang, Gyeongseo, Yeolseo, Nonseo, Annotation books

1. 머리말

본 연구는 2015년 고려 제종교장 학술조사 사업으로 진행된 한국·중국·일본 소재의 敎藏에 대한 서지 조사 가운데 먼저 한국에 소장된 교장을 經, 律, 論書의 註釋書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¹⁾

2015년도에 조사된 한·중·일 소재 교장에 대하여 일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서지 조사가 이루어진 건수는 모두 110건이며, 110건에 대한 국가별 소재 현황은 한국 40건, 중국 9건, 일본 61건으로 확인되었다.²⁾ 이를 다시 경, 율, 논서 등의 주석서로 분류한 결과 經書 15종에 대한 주석서는 모두 47종이고, 律書 2종에 대한 주석서는 7종이며, 論書는 8종에 대한 주석서는 26종이다. 이외에 目錄類 5종과 기타 1종으로 분류되었다.

15종의 경서에 대한 47종의 주석서는 『大方廣佛華嚴經』의 주석서 12종, 『妙法蓮華經』의 주석서 13종, 『梵網經』의 주석서 8종, 『圓覺經』의 주석서 2종, 『佛說盂蘭盆經』의 주석서 2종,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 『阿彌陀經』, 『無量壽經』, 『金剛三昧經』, 『般若波羅蜜多心經』, 『大佛頂首楞嚴經』, 『解深密經』, 『仁王般若波羅蜜經』, 『大般涅槃經』, 『維摩經』의 주석서가 각각 1종이다.

2종의 율서에 대한 7종의 주석서는 『四分律』의 주석서 4종, 『十誦律』의 주석서 3종이다.

8종의 논서에 대한 26종의 주석서에는 『大乘起信論』의 주석서 8종, 『順正理論』의 주석서 11종, 『瑜伽師地論』의 주석서 2종, 『成唯識論』, 『俱舍論』, 『法華論』, 『金剛錍論』의 주석서가 각각 1종이고, 『金剛錍論』의 경우 文句科 1종이 있다.

1) 『서지학연구』 다음 호인 제67집에는 중국, 일본 등 외국에 소재한 敎藏의 書誌 조사 연구에 대해 수록할 예정이다.

2) 2015년도에 조사된 한중일 소재 교장 중에서 한국 소재 교장은 고려대장경연구소 4건, 송광사 21건, 계명대 5건, 월정사 10건이고, 중국 소재 교장은 北京圖書館 9건이며, 일본 소재 교장은 大正大 12건, 東洋大 16건, 龍谷大 11건, 東大寺 4건, 天理大 10건, 大谷大 5건, 京都博物館 3건으로 총 110건이 조사되었다.

경·율·논서의 주석서 이외에 目錄類 5종과 기타 1종으로 모두 86종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총 110건 중에서 『大方廣佛華嚴經』의 주석서는 모두 22건으로 12종이 있는데, 智儼의 『大方廣佛華嚴經搜玄分齊通智方軌』, 法藏의 『華嚴經探玄記』, 法藏의 『華嚴一乘教分記』, 法藏의 『華嚴經問答』, 澄觀의 『大方廣佛華嚴經疏』, 『大方廣佛華嚴經疏科文』, 『貞元新譯華嚴經疏』,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宗密的 『注華嚴法界觀門』, 『因明入正理論科』, 李通玄의 『新華嚴經論』, 實叉難陀 譯經, 李通玄 造論, 誌寧 釐經合論의 『大方廣佛華嚴經合論』 등이다.

『妙法蓮華經』의 주석서는 모두 14건으로 13종이 있는데, 惠詳의 『弘贊法華傳』, 湛然的 『法華文句記』, 『法華文句科』와 『法華玄義十不二門』, 處謙의 『法華玄記十不二門顯妙』, 仁岳의 『十不二門文心解』, 知顛의 『妙法蓮華經玄義』, 吉藏의 『法華玄論』, 『法華遊意』, 『法華經義疏』, 惠沼의 『法華經決』, 必昇校證, 徐行善科註의 『科註妙法蓮華經』, 『註妙法蓮華經』 등이다.

『梵網經』의 주석서는 모두 7건으로 8종이 있는데, 元曉의 『菩薩戒本持犯要記』, 太賢의 『菩薩戒本宗要』, 『梵網經古迹記』, 『古迹記科文』, 『古迹記註釋』과 勝莊의 『梵網經述記』, 『法網經菩薩戒本抄』, 『法網經疏』 등이다.

『圓覺經』의 주석서는 모두 6건으로 2종이 있는데, 宗密的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과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이고, 『佛說盂蘭盆經』의 주석서는 2건으로 2종인데, 宗密的 『盂蘭盆經疏新記』, 『佛說盂蘭盆經疏』이고,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의 주석서는 4건으로 1종인데, 太賢의 『本願藥師經古迹』이며, 그 외 각각의 經에 대한 주석서로는 8건으로 9종인데, 『阿彌陀經』과 『無量壽經』의 주석서인 元曉의 『無量壽經宗要』와 『佛說阿彌陀經疏』, 『金剛三昧經』의 주석서인 元曉의 『金剛三昧經論』, 『般若波羅蜜多心經』의 주석서로 法藏의 『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에 仲希가 자신이 지은 『顯正記』를 붙여 다시 편찬한 『般若心經疏顯正記』, 般刺蜜帝가 번역한 『大佛頂首楞嚴經』의 주석서인 子璿의 『首楞嚴義疏注經』, 玄奘이 번역한 『解深密經』의 주석서인 圓測의 『解深密經疏』, 鳩摩羅什이 번역한 『仁王般若波羅蜜經』의 註釋書인 圓測의 『仁王經疏』 1건,

曇無讖이 번역한 『大般涅槃經』의 주석서인 吉藏의 『涅槃經遊意』, 鳩摩羅什의 『維摩經』에 대한 최초의 주석서인 僧肇의 『注維摩詰經』 등이다.

『大乘起信論』의 주석서는 15건으로 8종이 있는데, 元曉의 『大乘起信論別記』, 『大乘起信論疏』, 法藏의 『大乘起信論疏』, 慧遠의 『大乘起信論義疏』, 曇延의 『大乘起信論義疏』, 子璿의 『[起信論]筆削記』, 子璿의 『起信論疏科文』, 筏提摩多的 『釋摩訶衍論』 등이다.

『順正理論』의 주석서는 모두 12건으로 11종이 있는데, 湛然的 『止觀大意』, 『摩訶止觀科文』, 道世의 『法苑珠林』, 慧琳의 『一切經音義』, 希麟의 『續一切經音義』, 知顛의 『四念處』, 『四教儀』, 灌頂의 『天台八教大意』, 諦觀의 『天台四教儀』, 從義의 『天台四教儀集解』, 僧肇의 『寶藏論』 등이다.

『瑜伽師地論』의 주석서는 모두 3건으로 2종이 있는데, 窺基의 『瑜伽師地論略纂』과 遁倫의 『瑜伽論記』이며, 각각의 論書에 대한 주석서로는 5건으로 5종인데, 玄奘譯本人 『成唯識論』의 주석서인 慧沼의 『成唯識論了義燈』, 圓暉가 저술한 『俱舍論頌疏』의 주석서인 常眞의 『俱舍論頌疏抄』, 世親이 지은 『法華論』의 주석서인 吉藏의 『法華論疏』, 湛然的 『金剛鉈論』의 주석서인 智圓의 『金剛鉈顯性錄』과 『金剛鉈文句科』 등이다.

『四分律』의 주석서는 모두 4건으로 4종인데, 道宣의 『四分律刪補隨機羯磨』,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 『四分律比丘舍注戒本』, 『四分律舍注戒本疏』 등이며, 『十誦律』의 주석서는 모두 3건으로 3종인데, 錢唐 元照의 『佛制比丘六物圖』, 梁 武帝의 『慈悲道場懺法』, 道宣의 『教誡新學比丘行護律儀』 등이다.

그리고 目錄類 4건의 5종과 기타 1건의 1종으로, 目錄類의 경우는 廓心の 『圓宗文類集解』, 義天의 『新編諸宗敎藏總錄』, 彦惊의 『唐護法沙門法琳別傳』, 恆安의 『大唐保參大乙巳歲續貞元釋敎錄』, 彦琮의 『續貞元釋敎錄』과 역대의 각종 漢文大藏經의 서목을 기록한 『藏經目錄』이고, 기타는 了通의 『大顛和尚注心經』이다.

2. 經書의 註釋書

2.1 『大方廣佛華嚴經』의 註釋書

華嚴經의 전래와 함께 그 주석서도 일찍부터 전래되어 화엄사상의 연구와 계승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중국에서 화엄경을 逐文註解한 사람은 『華嚴疏』를 저술한 北齊의 玄暢(416-484)을 시작으로 하여 北魏의 孝文帝 太和(477-499)때 劉謙之가 『華嚴論』 60권을, 孝明帝때 靈辨(477-522)이 『華嚴論』 100권을, 光統律師라 불리는 慧光(468?-537?)이 『華嚴經廣疏』 10권, 『華嚴經略疏』 4권³⁾을 지어 南北朝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華嚴學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어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초기의 발전을 거쳐 智儼(602-668)은 慧光의 著書에 접하여 깊은 연기의 세계를 이해하는 등 六十華嚴의 주석서인 『搜玄記』 5권을 남겼으며,⁴⁾ 이어 法藏(643-712)은 지엄의 문하로 들어가 연구를 하고 역시 같은 육십화엄의 주석서인 『探玄記』 20권을 저술⁵⁾하였다. 또 8세기초 華嚴經에 대하여 주체적 입장에서 중국사상을 대담하게 도입시킨 李通玄의 『新華嚴經論』 40권⁶⁾이 있고, 그 밖에 文超의 『華嚴關鍵』, 法詵(718-778)의 『華嚴經義記』 12권 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華嚴學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사람은 澄觀과 宗密의 두 사람으로 澄觀은 『大方廣佛華嚴經疏』 60권과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90권을 撰述하였으며,⁷⁾ 宗密(780-841)은 澄觀의 제자로서 『華嚴經行願品別行疏鈔』 6권, 『華嚴原人論』 1권, 『法華嚴法界觀門』 1권 등의 저서를 남겼다.⁸⁾ 이 두 사람의 뒤를 이어 宋代에 子璿과 淨源(1011-1088)이 華嚴敎學을 발전시켜 나갔다.⁹⁾

3) 蔡澤洙, “義湘의 華嚴思想,” 『韓國華嚴思想史研究』 (서울: 民族社, 1988), 254.

4) 키무라 키요타카 저, 章輝玉 옮김, 『中國佛敎思想史』 (서울: 民族社, 1989), 97.

5) 키무라 키요타카(1989), 100.

6) 키무라 키요타카(1989), 104.

7) 키무라 키요타카(1989), 107.

8) 任繼愈 저, 추만호·안영길 공역, 『중국 중세불교사상 비판』 (서울: 民族社, 1989), 148.

9) 키무라 키요타카(1989), 114.

2.1.1 智儼의 『大方廣佛華嚴經搜玄分齊通智方軌』

월정사 소장본, 영본 1冊 (卷1上-5上)

이 책은 ‘卷1上-5上’의 영본 1冊인 木板本(再雕大藏經)으로 1245년(乙巳) 南海分司大藏都監에서 간행된 것으로 조선시대 後刷本으로 추정된다. 唐代 智儼의 저술로 『華嚴經搜玄記』, 『華嚴經略疏』라고도 하며, 『大正藏』 35冊에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60권 진본 화엄경을 해석하여 교리를 체계화 한 것으로 전체 5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의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행자수는 14行 20字, 책의 크기는 35.7×31.9cm이다. 판심제는 ‘搜玄記1上-5上’이고, 표지서명은 ‘大方廣佛華嚴經搜玄記 一之五’이다. 卷1과 卷4의 권말에는 ‘乙巳歲分司大藏都監 開板’, 卷2와 卷3의 권말에는 ‘乙巳歲分司大藏都監 雕造’의 刊記가 있으며, 卷5에는 간기가 없다.

2.1.2 法藏의 『華嚴經探玄記』

월정사 소장본, 영본 2冊 (卷1-2, 19-20)

이 책은 法藏이 述한 『華嚴經探玄記』 卷1-2, 19-20으로 영본 2冊의 木板本(再雕大藏經)이다. 乙巳歲에 간행한 것으로 보아 『華嚴經搜玄記』와 더불어 1245년(乙巳) 南海分司大藏都監에서 간행된 것으로 조선시대 後刷本으로 추정된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고, 행자수는 『搜玄記』와 달리 29行 18字로 대장경 판식과 다르며, 책의 크기는 35.7×31.9cm이다. 판수제는 ‘探玄記’이고 판수제 다음으로 張次(第□幅)와 刻手名이 확인된다. 卷1에는 권말 간기가 없으며, 卷2, 19, 20에는 ‘乙巳歲分司大藏都監 開板’의 간기가 확인된다.

2.1.3 澄觀의 『大方廣佛華嚴經疏』

①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본, 4卷 2冊 (卷1-2, 3-4)

이 책은 澄觀이 저술한 것을 淨源이 기록한 4卷 2冊의 木板本이다. 辛丑5월에

伽倻山下鉅寺에서 彫造(後刷는 1990年代, 海印寺)한 것으로 高麗때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권자본 인출이나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행자수는 20行 15字, 책의 크기는 39.8×32.8cm이다. 2冊의 卷末刊記는 ‘龍壽寺社堂比丘玄揆主張/下鉅寺道人天章戒湛勸緣/道人聞契 校勘 辛丑年五月日 伽倻山下鉅寺彫造’이다.

② 계명대 소장본, 卷106, 卷46, 卷97, 不分卷 1冊

이 책은 澄觀이 저술한 것을 淨源이 기록한 것으로, 卷106은 1帖(27張)으로 목판본이며 간행 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장정은 折帖裝(1張 5面, 1장크기 53.5cm)이며, 행자수는 4行 15字, 책의 크기는 32.2×10.8cm이다. 판심제는 ‘注華嚴’, ‘注華嚴經’ 등으로 되어 있고, 표지서명은 ‘大方廣華嚴經疏 卷第一百六’이다. 표지는 椽紙이며, 金泥의 표제 상부에 開法藏眞言이 있다. 卷末의 校正記는 ‘錢唐講華嚴經明義大師曇慧詳校/雲間講華嚴經興教大師常矩重校’이며, ‘嘉靖三十三年(1554)甲寅六月日再覽壬子八日月大乘持任智膺侍奉覺圓’의 墨書 기록이 있다.

卷46은 1帖(26張)으로 목판본으로 간행 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장정은 折帖裝(1張 5面, 1장크기 53.9cm)이며, 행자수는 4行 15字, 책의 크기는 32.3×10.8cm이다. 판심제는 없고 판수제는 ‘注華嚴經 四十六’이다. 표지서명은 ‘大方廣華嚴經疏 卷第四十六’이며 표지는 갈색, 金泥의 표제에는 開法藏眞言이 있다. 卷末 墨書는 ‘丁巳七月日 南白寺持住 熙(手決) 嘉靖三十三年(1554)甲寅仲冬日 大乘持任智膺得看此經侍奉覺圓’이다.

卷97은 1帖(29張)으로 목판본이며 간행 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장정은 折帖裝(1張 5面, 1장크기 53.7cm)이며, 행자수는 4行 15字, 책의 크기는 32.2×10.8cm이다. 판심제는 없고 판수제는 ‘注華嚴經’이다. 표지서명은 ‘大方廣華嚴經疏 卷第九十七’이며 卷末에는 ‘大方廣佛華嚴經疏卷第九十七 錢唐講華嚴經明義大師 曇慧 詳校/雲間講華嚴經興教大師 常矩 重校’의 기록이 있다.

不分卷 1冊(10張)은 목판본이며 간행 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장정은 折帖裝(1張 5面, 1장크기 53.5cm)이며, 행자수는 16行 大15/小20字, 책의 크기는

32.4×10.9cm이다. 판심제는 없고 판수에 ‘注華嚴經 七十五’라 명기되어 있다. 표지는 落張된 상태이다.

③ 송광사 소장본, 零本 1冊 (卷1, 40張 이후 缺張)

零本 15冊 (卷43-45, …, 卷118-120)

零本 25冊 (卷11-12, …, 卷117-118)

零本 33冊 (卷3-4, …, 卷119-120)

영본 1冊은 목판본이며, 17세기 조선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행자수는 6行 15字, 책의 크기는 27.8×19.2cm이다. 판심제는 ‘華嚴’이다.

영본 15冊은 목판본으로 卷85와 卷120의 권말간기를 통해 1633년에서 1635년 사이에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행자수는 6行 15字, 책의 크기는 33.3×22.1cm이다. 판심제는 ‘華嚴’ 또는 ‘華品’ 등으로 되어있다. 표지서명은 ‘華嚴經 十四向品’이며, 卷85의 권말간기는 ‘崇禎八年乙亥(1635)四月日 全羅道順天地曹溪山松廣寺開板’, 卷118은 ‘崇禎八年[]月日 順天地曹溪山松廣寺開刊’, 卷120은 ‘崇禎六年癸酉(1633)仲秋日 全羅道順天地曹溪山松廣寺開板 前八道都摠攝國一都大禪師 覺性校 前全羅都摠攝融妙都大禪師熙玉’이다.

영본 25冊은 목판본이며, 卷末 刊記를 통해 1634년에서 1635년 사이에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행자수는 6行 15字(小字 20字), 책의 크기는 32.3×21.3cm이다. 판심제는 ‘華嚴’이고 표지서명은 墨書로 ‘華嚴經 卷〇〇’이라고 기록하였다. 각 권별로 간기를 살펴보면 卷12는 ‘崇禎八年(1635)乙亥三月日 全羅道順天府曹溪山松廣寺重刊’, 卷21은 ‘崇禎八年乙亥(1635)四月日 全羅道順天松廣寺 開板’, 卷22는 ‘崇禎七年甲戌(1634)四月日 []’, 卷44는 ‘慶尙道昆陽郡栖鳳寺開刊 移來全羅道順天府曹溪山 留轉于松廣寺’, 卷50은 ‘華嚴宗山中大德聖賢/道都摠攝覺性/全羅判事熙玉尊璽/華嚴經幹善化主敬嘗崇禎七年甲戌(1634)十二月日 全羅順天松廣寺 刊板’, 卷118은 ‘崇禎八年(1635)

五月日 順天地曹溪山松廣寺開刊'이다.

영본 33冊은 목판본이며, 권말 간기를 통해 1633년에서 1635년 사이에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행자수는 6行 15字, 책의 크기는 33.5×26.7cm이다. 판심제는 '華嚴'으로 되어있고 표지서명은 '華嚴 卷○○'이라고 기록하였다. 각 권말의 기록으로 卷10은 '崇禎八年乙亥(1635)全羅道順天地曹溪山松廣寺刊校', 卷44는 '大經四十三板一隻又十地論三十一板都七十五板 慶尙道昆陽郡栖鳳寺開刊 移來全羅道順天府曹溪山留轉于松廣寺 崇禎七年甲戌(1634)七月日', 卷72는 '崇禎乙亥三月日全羅道順天府曹溪山松廣寺', 卷120은 '前八道都摠攝國一都大禪師覺性校 前全羅都摠攝融妙都大禪師熙玉 執事大禪師性玄 崇禎六年癸酉(1633)仲秋日 全羅道順天地曹溪山松廣寺開板'이다.

2.1.4 澄觀의 『大方廣佛華嚴經疏科文』

송광사 소장본, 1卷 1冊

이 책은 澄觀 排定の 『大方廣佛華嚴經疏科文』 卷1이며, 1739년(英祖 15)에 慶尙右道 山陰縣 國泰寺에서 간행된 목판본이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행수는 10行이고 字數는 일정하지 않으며, 책의 크기는 30.3×19.1cm이다. 판심제는 없으며 표지서명은 '華嚴經, 玄譚科'이다. 1679년(肅宗 5) 若訥의 『華嚴經玄談科』 刊行에 대한 跋文 '吾東僻在海外 … 崇禎後己未(1679)端午日 海東智異山若訥謹題'와 1739년(英祖 15) 伽倻山 晦菴定慧의 序文 '刊華嚴經懸談疏科目序/ 古德有言 … 乾隆四年己未三月日伽倻山晦菴定慧序'가 있다. 권말의 간기는 '乾隆四年己未(1739)七月日 慶尙右道山陰縣方丈山國泰寺開刊'이다.

2.1.5 澄觀의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본, 2卷 1冊 (卷1-2)

이 책은 1990年代 海印寺에서 後刷한 2卷 1冊의 목판본으로 간행 시기는 未詳

이다.¹⁰⁾ 장정은 線裝(5針綴), 1張 2面이며, 행자수는 30行 20字이고, 책의 크기는 39.8×32.8cm이다. 원래는 卷子本으로 印出했으나 線裝으로 製책으로 되었고, 표지는 황색염지이다. 刊記가 없어서 권말에 ‘大安(또는 壽昌)○年干支歲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와 같은 간기가 관각되어 있는 의천의 敎藏에 포함된 경판과는 다르다. 따라서 해인사 소장본의 『大方廣佛華嚴經疏』와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는 宋本이나 일본 東大寺에 보관된 교장의 翻刻本 계열은 아니며 그 관각 시기도 다르다.

2.1.6 宗密의 『注華嚴法界觀門』

송광사 소장본, 單卷 (合綴本)

이 책은 圭峰蘭若沙門 宗密이 注한 『注華嚴法界觀門』과 橋李沙門眞界가 集解하여 풀이한 『因明入正理論科』를 합철한 木板本으로 1713년(肅宗 39)에 慶尙右道 山陰縣 智異山 玉山寺에서 重刊한 것이다. 『注華嚴法界觀門』에는 唐나라 綿州刺史 裴休가 쓴 ‘序文’과 1713년에 曹溪山沙門 秀演이 쓴 ‘重刊華嚴法界觀門跋’이 있다. 『因明入正理論科』에는 橋李沙門眞界가 集解한 ‘因明入正理論解’와 1590년에 쓴 眞界의 ‘跋文’과 1713년 曹溪山沙門 秀演이 쓴 ‘重刊因明論跋’이 있다. 장정은 線裝(5針綴), 행자수는 10行 20字, 책의 크기는 30.2×19.7cm이다. 판심제는 ‘華嚴法界觀’이고 표지서명은 ‘法界觀, 因明合附’로 되어 있다. 重刊跋文과 刊記는 아래와 같다.

<注華嚴法界觀門>

序：唐綿州刺史 裴休述/法界者一切衆生… 讚曰入法界之術

重刊華嚴法界觀門跋：華嚴法界觀門唐杜順和尚所造…

崇禎後癸巳(1713)陽月日 海東曹溪山沙門無用秀演題

刊記：康熙五十二年(1713)癸巳孟秋日 慶尙右道山陰智異山玉山寺開刊

10) 이 판본의 간행 시기를 해인사에 소장된 『大方廣佛華嚴經疏』 제3권 32장의 다음 장에 관각된 誌文의 내용으로 추정하면, 辛丑年 즉 1241년(高宗 28)경으로 판단된다(남권희, 『華嚴經 註釋書의 刊行과 流通』(2014); 고려 세종교장 조사 2차 학술보고회 자료집).

<因明入正理論科>

跋：余嘗掩關閱起信論疏…萬曆庚寅(1590)仲春晦日沙門眞界跋

重刊因明論跋：我東地偏一隅…崇禎後癸巳(1713)陽月日

海東曹溪山沙門無用秀演題

刊記：康熙五十三年甲午(1714)光春日 慶尙道山陰智異山玉山寺開板

2.1.7 李通玄의 『新華嚴經論』

월정사 소장본, 零本 2冊 (卷1-4, 卷37-40)

이 책은 李通玄이 저술한 『新華嚴經論』 120卷 中 ‘卷1-4, 卷37-40’의 영본 2冊이며, 分司大藏都監에서 開板한 木板本の 後刷本이다. 장정은 線裝(5針綴), 행자수는 13行 16字, 책의 크기는 35.6×29.1cm이다. 판심제와 표지서명 모두 ‘新華嚴經論’이다.

2.1.8 『大方廣佛華嚴經合論』

송광사 소장본, 零本 4冊 (卷21-24, 卷25-28, 卷57-60, 卷85-88)

이 책은 唐나라때 實叉難陀가 譯經하고, 李通玄이 造論한 것을 福州 開元寺 沙門 誌寧이 經을 정리하여 合論한 것으로 ‘卷21-24, 卷25-28, 卷57-60, 卷85-88’의 영본 4冊이다. 간행처가 확실하지 않으나 19세기말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 木板本이다. 장정은 4針綴의 線裝이며, 行자수는 10行 20字, 책의 크기는 24.0×15.2cm이다.

2.2 『圓覺經』의 註釋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圓覺經』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대승불교의 주요 소의경전의 하나이다. 693년 북인도 출신의 승려 佛陀多羅가 白馬寺에서 역출했다고 하지만 唐代에 이미 경의 진위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현재는 7세기 말에 중국에서 성립한 僞經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大乘起信論』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首楞嚴經』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전으로, 이 경의 내용은 석존이 문수보살·보현보살 등 12보살들과의 문답을 통하여 大圓覺의 妙理와 그 觀行을 설한 것이다. 여러 승려들이 주석서를 저술하였으나 唐代 승려인 圭峯 宗密은 『圓覺經』을 禪教一致라는 관점에서 중시하여 『圓覺經大疏』 12권, 『圓覺經大疏鈔』 13권, 『圓覺經略疏』 2권, 『圓覺經略疏鈔』 13권 등의 주석서를 저술하고 동시에 『圓覺經道場修證義』 18권을 저술하는 등 『圓覺經』에 지대한 관심을 표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普照知訥이 깊이 신봉하였으며 조선후기에는 履歷과정에 수용되어 『法華經』·『楞嚴經』·『金剛經』과 함께 四教科의 과목이 되었다. 『圓覺經』에 대한 주석서로는 주로 宗密의 疏가 유행하였으나 조선시대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주석서가 만들어져 유통되었는데, 조선초 涵虛己和(1376-1433)의 『圓覺經疏』 3권과 조선 후기 蓮潭有一(1720-1799)의 『圓覺私記』 2권, 仁嶽義沾(1746-1796)의 『圓覺私記』 1권이 가장 대표적이다.

宗密은 821년 終南山 草堂寺에서 『圓覺經』의 주석에 전념하여 823년 『圓覺經大疏』 3권을 완성하였고, 그 후 자신의 저작인 『圓覺經大疏』를 자세히 풀이한 『大疏鈔』를 완성하였다.

2.2.1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

- 송광사 소장본, ① 2卷 2冊 (卷5, 卷6), ② 6卷 5冊(卷1-6)
③ 2卷 2冊 (卷1, 卷2), ④ 零本 3卷 2冊(卷1-3)

①은 宗密이 저술하고 靈雲이 교정한 ‘卷5, 6’의 2卷 2冊으로 乙亥字本을 飜刻한 木板本이다. 1611년(光海君 3)에 智異山 能仁庵에서 刊行하여 雙溪로 옮겨 둔 것이다. 저자 표기에서 ‘終南山草堂寺沙門宗密述, 圭峰蘭若沙門 宗密於大鈔略出’했다는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圭峰 宗密이 『圓覺經』을 주석하고 자세히 풀이한 책을 다시 핵심만 추려낸 것으로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의 주석서인 『大方廣圓覺略疏注經』임을 알 수 있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행자수는 9行

16字이다. 卷6의 권말 간기는 ‘萬曆三十有九年辛亥之夏(1611년)智異山能仁庵刊移鑄于雙溪焉’이며, ‘印經大施主裴昌運保体無上甚深微妙法百千萬却難遭/遇我今開見得受持願解如來真實理’의 墨書가 있다.

②는 宗密이 저술하고 靈雲이 교정한 ‘卷1-6’의 6卷 5冊으로 乙亥字本을 飜刻한 木板本으로 後刷한 것이다. 1611년(光海君 3)에 智異山 能仁庵에서 刊行하여 雙溪로 옮겨 둔 것이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행자수는 9行 17字, 책의 크기는 36.0×24.6cm이다. 卷末의 刊記는 ‘萬曆三十有九年 辛亥之夏 智異山能仁庵刊移鑄于雙溪焉’이며, 발문은 ‘夫乾道乃天地之經 … 始自庚戌之歲入役 辛亥之夏訖工於秋前 … 萬曆三十九年辛亥菊月朔梅軒 後裔謹跋’이다.

③은 宗密이 저술한 ‘卷1, 卷2’의 2卷 2冊으로 乙亥字本을 飜刻한 木板本으로 後刷한 것이다. 刊記가 없어 간행한 연도를 알 수가 없으나 17세기 刊本을 19c末-20c初에 後刷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행자수는 9行 16字이다. 1-2張에 걸쳐 2편의 서문이 있는데, 1041년 宋 吳門傳教臨壇賜紫明義大師 思齊가 쓴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略鈔序’와 金紫光祿大夫守中書侍郎尙書門下平章事充集賢殿大學士 裴休가 撰하고, 龍沙章江禪院傳法沙門 如산이 註書한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略疏序’이다. 序文의 1면은 ‘大方廣圓覺經略鈔序/吳門傳教臨壇賜紫明義大師思齊述/修身者何戒律 … 皇宋康定二年(1041)辛巳歲构建鷄味月望日謹序’이며, 2면은 ‘大方廣圓覺經脩多羅了義經略疏注序/金紫光祿大夫守中書侍郎尙書門下平章事充集賢殿大學士 裴休撰/圭峰蘭若沙門 宗密科/龍沙章江禪院傳法沙門 如산註序/裴公河東 … 旨請觀七二峯本序’이다.

④는 宗密이 저술한 ‘卷1-3’의 木板本으로 영본 3卷 2冊이다. 刊記가 없어 간행한 연도는 알 수가 없으나 지질로 보아 조선후기에 後刷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행자수는 9行 16字, 책의 크기는 37.0×25.0cm이다. 1041년 宋의 思齊가 쓴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略鈔序’와 裴休가 撰하고, 如산이 裴休의 序文에 註書한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略疏序’가 있는데, 大方廣圓覺經略抄序는 ‘吳門傳教臨壇賜紫明義大師思齊述/皇宋康定二年(1041)辛巳歲构建

鷄味月望日謹序’의 내용이 建鷄味月望日謹序에는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略疏注序 裴休撰 如山註書’가 기입되어 있다.

2.3 『佛說盂蘭盆經』의 註釋書

『盂蘭盆經』은 全 1권으로 西晉時代에 월지국 출신 竺法護가 번역한 『佛說盂蘭盆經』이 원래 명칭이고, 『盂蘭經』이라고도 하며, 『大正藏』 16冊에 수록되어 있다.

불교적 효도를 강조한 불교 경전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佛陀의 大弟子인 目連이 자기 어머니 靑蓮부인이 생전의 죄에 대한 업보로 餓鬼地獄에서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서 부처에게 어머니를 救濟할 방법을 물었다. 부처는 스님들이 安居를 끝내고 參회 의식을 갖는 自恣日, 즉 7월 15일에 좋은 음식과 5가지 과일, 향촉과 의복으로 시방의 佛僧들을 공양하면 이 스님들의 힘으로 부모님이 고통에서 벗어나 천상에서 장수를 누릴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불가에서는 매년 安居가 끝나는 7월 15일에 盂蘭盆齋를 드린다.

『盂蘭盆經』은 매우 짧은 분량의 내용이지만 나름대로 뚜렷한 구성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경의 중간 부분, 즉 『自恣日 공양과 목련 어머니의 구제』에 관계된 내용에서 安居를 마친 수행 대중의 자자일에 공양을 올리고, 수행대중은 공양을 올린 施主家와 7세 부모를 위해 축원을 한다는 盂蘭盆齋¹¹⁾의 형태가 여기에서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다.

주석서로는 吉藏의 『盂蘭盆經疏』 1권, 慧淨의 『盂蘭盆經贊述』 1권, 宗密의 『盂蘭盆經疏』 2권, 智旭의 『盂蘭盆經新疏』 1권, 元奇의 『盂蘭盆經略疏』 1권, 高辨의 『盂蘭盆經總釋』 1권 등이 있다.

11) 盂蘭盆齋는 동북아시아 불교권의 대표적 불교의례 행사로 1,500년에 가까운 설행 역사를 지니고 있다. 장구한 역사만큼이나 盂蘭盆齋는 각 지역의 문화, 사상 등과 융합되면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변화로 변화하였다.

2.3.1 『佛說孟蘭盆經疏』

송광사 소장본, 2卷 1冊 (上·下)

이 책은 宗密이 저술한 ‘上·下’의 2卷 1冊으로 된 목판본으로 중국의 가흥대장경을 저본으로 하여 肅宗 30년(1704)에 昌原府 匡廬山 萬興寺에서 重刊한 것이다. 『新編諸宗教藏總錄』 卷第1에 수록되어 있다. 형식상 後跋(1張), 佛說孟蘭盆經(2張), 疏上·下, 音釋, 저본 권말기록, 疏注傳略, 續跋, 族主秩, 刊記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정은 線裝(5針綴)이고, 행자수는 10行 20字, 책의 크기는 28.6×18.9cm이며, 跋文과 冊末의 刊記는 다음과 같다.

跋文(冊首) : 孟蘭盆經後跋

夫佛氏之講孝與俗人之論有異蓋俗之 / 所謂孝者 …
康熙貳拾玖年(1690)庚午孟冬東溪敬一謹跋

續跋(冊末) : 往在庚午之春刻字上人勝修現名良工 /

人也偶得孟蘭盆經而其師兄山人戒宗 /
欲願鋟梓不得遂願而訣師弟勝修非唯 /
憐其師兄之願亦孝誠人也 遂以自發心 /
願梟取板材躬自刊刻之功之德可比乎 /
目蓮氏之誠也然刻始有年矣 荏苒歲月 /
蹉跎及此告成訖功于是略請跋於予予於 /
是感其願刻之誠遂茲略跋 /
願以此誠普及於一切我等皆報於二親 /
康熙四十三年(1704)甲申孟春晦夫尙文續跋

저본 권말기록 : 崇禎甲申(1644)孟夏松江弘法會貴州赤水釋繼慶較識

冊末刊記 : 康熙四十三年(1704)甲申仲春昌原府匡廬山萬興寺重刊 功德兼刻
勝修

2.4 『金剛三昧經』의 註釋書

『金剛三昧經』은 僞撰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잃지 않고 있는 것은 방대한 지식을 배경으로 한 통찰력으로 經典의 奧義를 천명한 元曉의 공덕에 힘입은 바가 크다. 元曉는 『金剛三昧經論』을 통해 자신의

사상의 핵심인 一心법과 中道와 和諍의 논리를 토대로 大乘의 敎學과 實踐을 두루 완벽하게 나타내고 있다. 元曉가 만년에 이르러 이 경전을 註釋하면서 스스로 新羅 佛教의 대들보임을 자처한 것은 그의 자부심의 표현인 동시에 경전의 가치에 대한 그의 확신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經의 思想的 성격은, 中觀佛敎의 空사상과 唯識佛敎의 唯識사상을 저변에 깔고, 華嚴의 三界唯心사상, 재가불교 및 보살사상을 현양한 『維摩經』의 정신, 『法華經』의 一佛乘사상과 불성에 대한 비유, 淨土宗 계열의 極樂往生사상, 그리고 佛性如來藏과 一闡提를 논한 “佛性論”의 사상 등 주요 大乘經論의 사상과 주제를 두루 다루고 있다. 특히 『능가경』, 『攝大乘論』, 『大乘起信論』 등과 사상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元曉는 『金剛三昧經』에 대한 그의 註釋인 『金剛三昧經論』에서 이러한 사상적 연관성을 인용과 해석을 통해 남김없이 구명하고 있다.¹²⁾

2.4.1 『金剛三昧經論』

송광사 소장본, 3卷 1冊 (上·中·下)

이 책은 松廣寺 소장본으로 新羅의 元曉가 저술한 『金剛三昧經論』으로 ‘上·中·下’로 된 3卷 1冊의 木板本이다. 刊記가 없어 간행한 연도는 자세하지 않으나, 高麗 版本을 後代에 印刷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책의 장정은 線裝(5針綴)이고, 행자수는 11行 20字, 책의 크기는 28.6×19.6cm이며, 卷下의 末尾에는 鄭晏이 ‘甲辰 八月初五日’에 쓴 기록이 있다. (伏爲寶祚無疆儲聞凝慶氛塵永寢朝野昇平晉陽公福海等 璿壽岳齊高次願孀親自及佛奴變呻爲謳禱年有永鏤板印施重念 此經出自虬宮發起因於疾病更願普及法界含生生生 不聞疾病之音不處胞胎常遊諸佛淨妙國土爾 甲辰八月初五日 優婆塞鄭晏誌)

12) 서정형, 『元曉 金剛三昧經論』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3. 論書의 註釋書

3.1 『大乘起信論』의 註釋書

『大乘起信論』은 대승불교의 論書이다. 줄여서 『起信論』이라고도 한다. 『대승기신론』은 印度의 馬鳴(100-160)이 기원후 2세기에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산스크리트 원전이나 티벳 번역본은 없고 중국 南朝의 梁나라 眞諦와 唐나라 實叉難陀의 2종의 한역본만 존재한다. 『대승기신론』이 인도에서 성립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대승기신론』은 이론과 수행 두 측면에서 대승불교의 핵심사상을 잘 요약하고 있는 저술이어서 예로부터 크게 중시되어 왔다.

본문은 크게 序分·正宗分·流通分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論의 本文인 正宗分은 다시 因緣分·立義分·解釋分·修行信心分·勸修利益分の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승기신론』이 대승불교에 미친 영향이 컸던 만큼, 『大乘起信論』에 대한 역대의 주석서는 30종 이상이다. 이 중에서 隋나라 慧遠의 『大乘起信論義疏』, 新羅 元曉의 『起信論疏』, 唐나라 法藏의 『大乘起信論義記』를 『起信論三疏』라고 하여 특별히 중요시 하였다. 『起信論三疏』를 비롯한 대다수의 주석서는 ‘舊譯’이라고 불리는 眞諦의 한역본에 대한 주석서이다.

3.1.1 元曉의 『大乘起信論疏』

송광사 소장본, 1冊 (上卷)

이 책은 영본 1冊의 木板本이며, 序文에 나타난 刊行時期는 元祿 9年(1696)이다. 版心題에는 ‘起信論海東疏’라 명기되어 있고, 線裝(4針綴), 10行 20字이다. ‘起信海東疏 上’이라는 書根題가 있다. 서문은 ‘起信論海東疏刊行序 釋於大衆起信論之疏振古凡/有三品曰法藏曰慧遠曰元曉/世謂之本論三師就中先二疏/行

于世年已尙矣 … 元祿九龍飛丙子之秋日/洛東智積門下覺眼謹誌’의 기록이 있으며, 권말에는 간기가 없다.

3.1.2 法藏의 『大乘起信論疏』

송광사 소장본, 1冊 (下卷)

이 책은 영본 1冊의 木板本이며, 간행기록이 없어 간행 시기는 알 수 없다. 線裝(5針綴), 행자수는 10行 18字이고, 版心題는 ‘起信論 下’라고 되어 있으며, 卷首에 ‘西太原寺沙門法藏述 草堂沙門宗密錄之隨科注於論文之下’라 기록되어 있어서 태원사의 法藏이 서술하고 재전제자인 宗密이 주석을 더하였음을 알 수 있다. 卷末에 刊記는 없으며, 권말에 ‘御製 予爲亡子旣成諸經又以經切於常持起/信論文義險奧幸得圭峰註解命印局添成/廣布庶幾憑此良緣亡子或得開眼漸漸成/就妙德不墜 …’의 願文이 있다.

3.1.3 子璿의 『[起信論]筆削記』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본, [筆削記 卷四(表紙書名)]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본은 ‘筆削記 卷四’라고 명시된 表紙書名으로 볼 때 子璿의 『[起信論]筆削記』로 추정되며, 木板本이다. 線裝(5針綴)형태로 크기는 29.4×19.3cm이다. 표지서명 아래 ‘玉泉寺中’이라는 墨書가 있다. 그 나머지는 자세하지 않다.

3.1.4 子璿의 『起信論疏科文』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본, 1冊

송광사 소장본, 1卷 1冊

송광사 소장본, 不分卷 1冊

위의 3冊은 모두 長水沙門 子璿이 脩定한 것으로 저자는 동일하며, 書名에

약간의 출입이 있다. 木板本인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본의 경우는 간행 시기는 알 수 없으나 高麗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송광사 소장본은 筆寫本이며, 정확한 간행 시기는 알 수 없으나 朝鮮에서 간행된 것인 보이며, 불분권 1책의 경우는 19세기 朝鮮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본 『起信論科文分』 二는 線裝(5針綴)형태로 크기는 29.9×18.8cm이다. 卷末題는 ‘起信論疏科文’이고 版心題는 ‘起信論疏’라 되어 있으며, 표지서명은 ‘起信論別科’로 墨書되어 있다.

송광사 소장본 1권 1책인 『起信論疏科文分』은 표지서명이 ‘起信論疏科圖’로 되어 있으며, 線裝(5針綴)형태로 크기는 23.0×18.2cm이다. 또한 불분권 1책인 『起信論疏科文』 二는 線裝(5針綴), 1張 2面의 형태로 책의 크기는 27.7×19.3cm이다. 卷末題는 ‘起信論疏科文’으로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본과 동일하며, 표지서명이 ‘起信科’로 되어 있고 卷首의 序文과 卷末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序文：起信論疏科謄妙序 ‘… 關逢涪灘楓村月上浣日 圓海室中書’
卷末기록：關逢涪灘無射月反支日徐金聲于香楓菴祖室中

3.1.5 龍樹의 『釋摩訶衍論』

월정사 소장본, 10卷 3冊

이 책은 전체 10권으로 저자에 대해서는 印度의 龍樹가 지었다는 설과 新羅의 月忠이 지었다는 설이 양립되어 있으나,¹³⁾ 월정사 소장본의 경우 龍樹가 지은 ‘권1-10’의 10권 3冊으로 丙午, 丁未年에 高麗國 大藏都監에서 간행한 木板本(再雕大藏經)이다. 이 책의 장정은 線裝(5針綴)이고, 행자수는 24行 17字, 책의 크기는 35.8×28.8cm이며 卷末 刊記는 다음과 같다.

13) 新羅의 月忠의 『釋摩訶衍論』 10권은 印度의 馬鳴이 지은 『大乘起信論』을 頌과 論으로 자세히 해석한 것이다. 『諸阿闍梨真言密教部類總錄』 上卷, 金剛界部 제3, 義疏集錄 2, 安然的 『真言教時問答』 제1, 『悉曇藏』 제1, 證眞의 『法華玄義私記』 제5 등에는 新羅의 月忠이 지은 것이라 되어 있다.

著者：龍樹菩薩造；姚秦三藏筏提摩多奉詔譯
序：天册鳳威姚興皇帝 製/ 盖聞月鏡曰… 申鄙製爰題序云
卷末 刊記：(2, 3卷) 丁未歲高麗國大藏都監奉/ 勅雕造
(1, 8, 9, 10卷) 丙午歲高麗國大藏都監奉/ 勅雕造

3.2 『順正理論』의 註釋書

『順正理論』은 모두 80권이며, 원제는 『阿毘達磨順正理論』이다. 인도의 論師 衆賢이 지었고 7세기 중엽에 唐나라 玄奘이 번역한 한역본이다.

내용이 매우 방대하여 계송이 무려 2만 5천수나 되며, 게재된 단어는 80만 개에 이른다. 世親이 지은 『俱舍論』의 체제를 모방하여 전체를 弁本事·弁差別·弁緣起·弁業·弁隨眠·弁賢聖·弁智·弁定の 8품으로 구성하여 『구사론』을 치밀하게 반박하고 說一切有部の 정통성을 주장하였다. 『구사론』의 경우는 說一切有部の 교리를 바탕으로 삼으면서도 그것을 비판적으로 취급한 반면, 『順正理論』은 世親의 『구사론』이 說一切有部の 교리를 왜곡하였다고 판단하고, 說一切有部の 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世親의 설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3.2.1 『法苑珠林』

월정사 소장본, 全 100卷

이 책은 唐나라의 승려 道世가 편찬한 불교 백과사전으로 甲辰年, 高麗 分司大藏都監에서 간행된 木板本(再雕大藏經)이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행자수는 11行 14字, 책의 크기는 35.9×28.9cm이다.

3.2.2 『一切經音義』와 그 續編

① 『一切經音義』, 월정사 소장본, 全100卷

이 책은 唐代 西明寺의 승려 慧琳(737-820)이 저술한 100卷의 木板本으로 後刷한 것이다. 두 편의 序文이 보이는데 ‘一切經音義序’와 唐文宗 開成 5년(840)

에 『一切經音義』를 새로 收藏하면서 쓴 ‘新收一切藏經音義序’가 있으며, 卷末에 刊記는 보이지 않는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行자수는 大字 6行 12字, 小字 12行 字數不定, 책의 크기는 30.0×19.7cm이다. 두 편의 序文은 다음과 같다.

新收一切藏經音義序 / 處士顧齊之
慧琳法師 俗性… 時開成五年(840)九月十日
一切經音義序 / 試太常寺奉禮郎景審述
昔者素王設… 元和十二年(817)二月三十日…
絕筆於西明寺焉…

② 『續一切經音義』, 월정사 소장본, 10卷 10冊[2冊?]

이 책은 希麟이 저술한 10권의 목판본으로 丁未年에 大藏都監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希麟은 生沒年이 자세하지 않다. 遼나라 승려로 燕京(北平) 崇仁寺에 거주하였다. 『續一切經音義』 10卷을 편찬하였는데 이는 唐代 慧琳의 『一切經音義』를 계승하여 開元(713-741) 이후에 入藏한 新譯經典 110部の 難字, 梵語 등의 音義를 간략하게 풀고 아울러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여 바로 잡은 것이다. 이 책의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行자수는 20行 14-16字, 책의 크기는 35.7×28.9cm이다. 5卷의 卷末面紙에는 比丘 最默이 돌아가신 恩師 太甘을 위하여 二兩을 시주한다는 내용의 施財記가 墨書로 기록되어 있다. 5卷과 10卷의 卷末面紙에 墨書로 기록된 施財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卷 : 比丘最默伏爲/ 亡恩師太甘/ 二兩
10卷 : 比丘義城堂定禧伏爲/ 亡父金浩景/ 亡母趙氏/ 十兩

3.2.3 『天台四教儀』와 그 註釋書

① 『天台四教儀集解』, 계명대 소장본, 영본 1冊 (卷中·下)

계명대 소장본은 ‘卷中·下’의 金屬活字本(乙亥字)으로 영본 1冊이다. 卷末 刊記가 없어 정확한 간행년대는 알 수 없으나 15c말-16c전반으로 추정된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行자수는 9行17字, 책의 크기는 31.5×20.1cm이다.

② 『天台四敎儀集解』, 송광사 소장본, 영본 1册 (卷下)

송광사 소장본은 ‘卷下’의 木板本(乙亥字 飜刻)으로 영본 1册이다. 朝鮮 明宗 9년(1554)에 全羅道 西臺寺에서 刊行하였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행자수는 9行 17字, 책의 크기는 33.2×20.6cm이다. 卷末의 刊記는 ‘嘉靖三十三年甲寅十二月日 全羅道彌山地長嶺山西臺寺開板’이다.

3.3 『俱舍論』의 註釋書

송광사 소장본, 8卷 2册 (권1-4, 5-8)

이 책은 圓暉가 저술한 『俱舍論頌疏』의 註釋書인 常眞의 『俱舍論頌疏抄』로 ‘권1-4, 5-8’의 8卷 2册의 木板本이며, 1462-1463년에 조선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것을 20세기에 後刷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책의 장정은 線裝(5針綴)이고, 행자수는 31行 22字이며, 卷末의 刊記는 다음과 같다.

刊記 : (卷1) 敎於慶尙道晉州雕造/
 天順六年壬午歲(1462)朝鮮國刊經都監 (20c後刷本)
 (卷2) 敎於 …/
 天順七年癸未歲(1463)朝鮮國刊經都監奉
 (卷3-8) 敎於慶尙道尙州牧雕造/
 天順六年壬午歲(1462)朝鮮國刊經都監奉

4. 律書의 註釋書

4.1 『四分律』의 註釋書

4대 戒律書의 하나로, 석가모니 입멸 후 100년경에 曇無德¹⁴⁾이 上座部의 根本

14) 曇無德: BC 3세기 초 인도의 승려로 BC 4세기경의 論師인 優婆鞠多의 5대제자 중 하나인 達磨笈多를 말한다. 目犍蓮의 五藏說을 이어받아 五藏을 주장하였다. 처음에는 化地部에 속했었으나, 五藏說이 化地部 논리에 어긋나므로 독립, 한 부를 만들었다고 전한다. 이

律 중에서 자기 견해에 맞는 것만을 네 번에 걸쳐 뽑아 엮은 律文佛書¹⁵⁾로 모두 60권이다. 姚秦의 佛陀耶舍와 竺佛念이 長安(410-412)에서 共譯하였으며 『大正藏』 22冊에 수록되어 있다. 전체 4分으로 구성된 내용을 보면, 1分은 제1권부터 제20권까지로 5言 40頌으로 된 원론과 比丘具足戒인 250戒가 수록되어 있다. 250戒는 4波羅夷, 13僧殘, 30捨墮, 90單墮, 100衆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⁶⁾ 2分은 제21권부터 제35권까지의 15권으로 되어 있으며 比丘尼具足戒의 8波羅夷, 17僧殘, 30捨墮, 178單墮, 100衆學 등 348戒가 수록되어 있다.¹⁷⁾ 3分은 제36권부터 제49권까지이며, 내용은 수도정진기간인 安居때에 지켜야 할 사항, 안거하는 동안에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自恣에 관한 것, 옷과 약에 관한 것, 惡性比丘를 꾸짖는 법, 죄를 짓고 숨기는 비구를 참회시키는 법, 비구니에 대한 특수한 威儀 등 16종의 편장으로 되어 있다. 4分은 제50권부터 제60권까지의 11권으로, 방에 머무는 방법이나 기타 雜法에 관한 것, 경전 편찬에 관한 五百結集과 七百結集 등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北魏의 文帝(471-499)시대에 五臺山에 거하던 法聰律師가 『四分律』을 처음으로 강술하였고 그 문인 道覆이 『四分律疏』 6卷을 撰하고, 그 뒤로 慧光·智首가 이어서 나와 『四分律』을 제창하였다. 智首의 門人인 道宣(596-667)은 南山律宗의 始祖로 『四分律』을 集大成하였다. 道宣의 南山宗 외에 法礪(569-635)의 相部宗, 懷素(624-697)의 東塔宗이 唐代에 四分律의 三宗으로 일컬었다.

이 책은 일찍부터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많은 주석서를 남겼고, 『梵網經』과 함께 출가 승려들이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할 根本戒律書로 채택되어 널리 유통되

曇無德部는 曇無德律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이 4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四分律宗이라고도 한다. 이 四分律宗은 南山的 道宣이 크게 일으켰다.

15) 원래는 印度 上座部系統의 法藏部에서 전하던 戒律이다.

16) 250戒는 죄를 범하면 4가지 바라이법에 의해 교단에서 쫓겨나는 4波羅夷, 죄를 범하면 20명 이상의 대중에게 참회해야만 승려로서 남을 수 있는 13僧殘, 戒를 범하면 그 재물을 대중에게 내놓고 참회해야 하는 30가지의 捨墮罪, 죄를 범한 뒤 대중에게 참회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90가지 單墮罪, 익히고 닦아야 할 100가지의 衆學戒, 서로의 다툼을 없애고 화합을 얻게 하는 일곱 가지 衆學戒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7) 비구의 250계와는 달리 波羅夷法이 8戒, 僧殘罪가 17戒, 捨墮罪가 30戒, 單墮罪가 178戒로서 비구보다 더 세분된 戒律을 가지도록 되어 있고, 衆學戒와 衆學戒는 같다.

었다. 즉 出家者들의 모든 규범과 생활이 이 책에 준하여 행해졌던 것이다. 이 책에 대한 우리나라 高僧들의 주석서로는 13종¹⁸⁾이 있다. 모두 新羅時代 高僧들의 주석서로서 신라시대에 이 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이 책에 대한 연구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현존하는 판본으로는 1461년(세조 7)부터 1463년까지 세조의 명에 의해서 판각한 海印寺 소장본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詳集記』 14권을 비롯하여, 1691년(숙종 17)에 간행된 仙巖寺 소장본 『四分律七聚六目抄』, 1769년(영조 45)에 안동 鳳停寺에서 개판된 10권 4책의 『四分律』이 있다.¹⁹⁾

4.1.1 『四分律刪補隨機羯磨』

월정사 소장본, 2卷 1冊 (卷上·下)

이 책은 京兆 崇義寺沙門 道宣이 저술한 ‘卷上·下’로 된 2卷 1冊의 木板本(再雕大藏經)으로 甲辰歲에 高麗의 大藏都監에서 간행한 판본을 後刷한 것이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행자수는 24行 14字, 책의 크기는 36.0×29.0cm이다. 첫 장에 실려 있는 ‘曇無德部四分律刪補隨機羯磨序’와 卷末의 刊記는 다음과 같다.

序文：曇無德部四分律刪補隨機羯磨序/ 京兆崇義寺沙門 道宣 集
原夫大雄御寓意惟… 今就其時用顯要者類聚編之文列十篇
義通七衆豈敢傳諸學司將以自明恒務也

(卷上) 刊記：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卷下) 刊記：甲辰歲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雕造

18) 智明이 지은 『四分律羯磨記』 1권, 신라에서 계율을 정립했던 慈藏의 『四分律羯磨記』 1권과 『四分律木叉記』 1권, 圓勝의 『四分律羯磨記』 2권과 『四分律木叉記』 1권, 元曉의 『四分律羯磨疏』 4권과 『四分律疏科』 3권, 『四分律宗記』 8권, 『四分律諸緣記』 8권, 『律部宗要』 1권, 憬興의 『四分律羯磨記』 1권, 『四分律拾毗尼要記』 3권, 明晶의 『四分律決問』 2권 등이다.

19) 이지관, 『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 (서울: 寶蓮閣, 1973). ; 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所 編, 『韓國佛教選述文獻總錄』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 이혜성, 『팔만대장경해설』 (서울: 普成文化社, 1978).

4.2 『十誦律』의 註釋書

이 책은 說一切有部가 전한 불교의 律藏으로 모두 6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鳩摩羅什이 번역하였으나 완역하지는 못하였으며, 뒤에 卑摩羅叉가 鳩摩羅什의 한역본을 보충하여 61권으로 완역하였다. 본래 산스크리트 원전을 번역한 것은 아니며, 3분의 2는 인도의 弗若多羅가 외우고 있던 것을 번역한 것이고, 나머지는 弗若多羅가 죽은 뒤에 曇摩流支가 가져온 경전을 번역한 것이다.²⁰⁾

그 내용은 比丘戒와 比丘尼戒로 나뉜다. 比丘戒는 남성 출가자인 比丘가 지켜야 할 戒律로 모두 257조를 해설하였다. 比丘戒의 뒤를 이어 교단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총 17法으로 7法, 8法, 雜誦 2法을 말하는데, 다른 律藏에서는 이를 ‘虔度部’라고 부른다. 이어 여성출가자인 比丘尼가 지켜야 할 比丘尼戒로 총 355조를 소개하였다. 比丘尼戒의 조직은 比丘戒의 조직과 같으나 조문 수가 훨씬 많고, 부정법이 없는 점이 다르다. 이 중 比丘戒와 공통되는 조문은 총 205조이다. 比丘尼戒 뒤에는 增一法과 優波離問法 등의 부수법을 설명한다.

이 律藏은 중국에서 중요시되어 404-409년 번역된 직후에는 주석서도 많이 나왔으나 내용이 번잡하여 『四分律』이 더 많이 읽혔다. 『四分律』은 戒의 수가 약간 다르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說一切有部の 한 파인 根本說一切有部에도 이 律藏과 비슷하면서 교훈적인 이야기가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가 전한다.

사실 중국에서는 鳩摩羅什을 중심으로 한 『十誦律』이 가장 먼저 유행하였다. 지역적으로 보면, 南部지역에서는 『十誦律』이 성행하였고, 關中지역에서는 『摩訶僧祇律』의 연구가 활발했으며, 『四分律』은 그다지 연구되지 않았다. 이후의 계율연구에서 『四分律』이 잘 정비되면서 『四分律』이 北部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20) 『十誦律』은 鳩摩羅什과 弗若多羅에 의해 처음 번역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번역 도중 弗若多羅의 갑작스런 입적으로 曇摩流支가 새로이 譯經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曇摩流支조차 번역을 다 끝내지 않고 譯經場을 떠나게 되자, 그 사실을 전해들은 慧園(334-416)이 曇摩流支에게 서신을 띄워 돌아와 번역을 마무리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게 되었다. 그렇게 曇摩流支에 의해 이 책의 번역을 마무리지게 되었고, 그 후 鳩摩羅什과 卑摩羅叉의 교정과 윤문으로 61권의 『十誦律』이 완역된 것이다.

되면서 그 외의 율장은 점차 그 지위를 잃어간 것이다.²¹⁾

4.2.1 『慈悲道場懺法』

월정사 소장본, 10卷 2冊 (卷1-5, 6-10)

이 책은 梁武帝가 皇后인 郗氏를 위하여 지은 것으로 ‘卷1-5, 6-10’의 10卷 2冊인 木板本이다. 卷末에 刊記가 없어 간행한 연도는 알 수가 없으나 高麗時代에 後刷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정은 線裝(5針綴)이며, 행자수는 10-11行으로 字數는 일정하지 않고 책의 크기는 35.7×31.6cm이다.

5. 맺음말

2015년에 조사된 총 110건의 86종에 달하는 교장 중에서 經書 15종에 대한 주석서는 모두 47종이고, 論書는 8종에 대한 주석서는 26종이며, 律書 2종에 대한 주석서는 7종이다. 그 나머지 目錄類 5종과 기타 1종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한국 소재의 교장은 총 40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별로 구분해보면 高麗 16종, 朝鮮 14종이다. 經書의 주석서는 12종으로 高麗와 朝鮮이 각각 6종이며, 論書의 주석서는 11종으로 高麗 6종, 朝鮮 5종이며, 目錄類 4종은 高麗와 朝鮮이 각각 2종이며, 律書의 주석서는 2종으로 모두 高麗에서 간행한 것이고, 기타 1종은 朝鮮에서 간행한 것이다.

둘째, 간행 및 인출 시기별로 살펴보면 高麗時代(918-1392) 간행된 것이 20건인데, 11c 1건, 甲辰, 乙巳, 丙午, 丁未歲의 再雕大藏經 後刷本 11건과 高麗時代 4건, 20c後刷本 2건, 年代未詳 2건이다. 또한 朝鮮時代(1392-1896) 간행된 것이 20건이며, 15c 2건, 16c 1건, 16c추정 1건, 17c 6건, 18c 3건, 19c 1건, 朝鮮時代 1건, 19c말-20c초後刷 1건, 20c後刷 1건, 未詳 3건 등으로 구분된다.

21) 임경미(원영), “도선율사와 율종계보에 대한 논의,” 『淨土學研究』 第13輯(2010), 237-261.

셋째, 간행 版本別로 구분해보면 木板本 32건, 筆寫本 3건, 金屬活字本(乙亥字) 1건이다. 그 중 高麗時代의 경우, 총 20건 모두 木板本으로 再雕大藏經版本 11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朝鮮時代의 경우, 총 20건 중 木板本 12건, 筆寫本 3건, 乙亥字 飜刻 後刷本 4건과 金屬活字本(乙亥字) 1건이 있다.

이상의 한국 소재 교장의 서지 조사를 토대로 교장의 經·律·論書의 註釋 書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전반적인 형태사항 및 서지적 분석의 결과를 통해 한국에 전존하는 교장의 기초적인 학술자료 및 고증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단행본]

- 戒環. 『中國華嚴思想史研究』. 서울: 불광출판부, 1996.
- 高峯了州 著, 張戒環 譯. 『華嚴思想史』. 서울: 保林社, 1988.
- 高翊晉. 『韓國撰述佛書의 研究』. 서울: 民族社, 1987.
-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편. 『古代동아시아 불교 문헌의 새로운 발견』. 서울: 씨아이알, 2010.
- 김두진. 『고려전기 교종과 선종의 교섭사상사 연구』. 서울: 일조각, 2006.
- 김상현. (교감번역) 『화엄경문답』. 서울: 씨아이알, 2013.
- 김상현 외, 불교사학회 편. 『韓國華嚴思想史研究』. 서울: 민족사, 1988.
-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 大蓮 李永子博士 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譯. 『天台思想과 東洋文化』. 서울: 佛地社, 1997.
- 大屋徳城. 『佛敎古板經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1988.
- 박용진. 『의친;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해안, 2011.
- 佛敎史學會 編. 『古代韓國佛敎敎學研究』. 서울: 民族社, 1989.

- 서정형. 『元曉 金剛三昧經論』.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 송광사 정보박물관. 『松廣寺 佛書展示 圖錄』. 서울: 대학사, 2004.
- 심재룡 외 편역. 『고려시대의 불교사상』.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 이근명 외편. 『송원시대의 고려사 자료』 1·2. 서울: 신서원, 2010.
- 이진한. 『고려시대 송상왕래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2011.
- 任繼愈 著, 추만호·안영길 공역. 『중국 중세불교사상 비판』. 서울: 민족사, 1989.
- 장동익. 『고려시대 대외관계사 종합년표』.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장동익. 『송대려사자료집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趙明基.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 서울: 經書院, 1982.
- 蔡尙植. 『高麗後期佛敎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1.
- 천혜봉. 『고려대장경과 교장의 연구』. 서울: 범우, 2012.
- 최병현 외. 『한국불교사 연구 입문』 상·하. 파주: 지식산업사, 2013.
- 竺沙雅章. 『宋元佛敎文化史研究』. 東京: 汲古書院. 2000.
- 키무라 키요타카 著, 章輝玉 옮김. 『中國佛敎思想史』. 서울: 민족사, 1989.
- 韓鍾萬. 『韓國佛敎思想의 展開』. 서울: 민족사, 1998.
- 許興植. 『高麗佛敎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6.
- 許興植. 『韓國中世佛敎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4.
- 曉城趙明基先生遺文稿刊行委員會 譯. 『曉城趙明基先生遺文稿 韓國佛敎史學 論集』. 서울: 민족사, 1989.

[논문]

- 김영미. “11세기 후반 - 12세기 초 고려·요 외교관계와 불경교류.” 『역사와 현실』 43(2002).
- 박상균. “고려시대 경진전수에 관한 고찰.” 『서지학산고』. 서울: 민족문화사, 1989.
- 朴鎔辰. “의천의 『圓宗文類』 編纂과 그 의의.” 『中學研究』 第82號(2006).
- 석길암. “송에 대한 고려의 불전 공여와 그 의도.” 『한국사상사학』 제40집(2012. 4).
- 오용섭. “11-12세기 교장류 불서의 한중일 교류.” 『石堂論叢』 제58집(2014).

이중수. “속중 7년 중국선박의 표착과 백암성종의 불서간행.” 『불교학연구』 제21호(2008).

임경미(원영). “도선율사와 율종계보에 대한 논의.” 『淨土學研究』 第13輯(2010).

張東翼. “佛典의 流通을 통해 본 高麗時代의 韓·日關係.” 『石堂論叢』 제58집(2014).

蔡澤洙. “義湘의 華嚴思想.” 『韓國華嚴思想史研究』 서울: 民族社, 1988.

한미경. “고려와 북송이 서적 교류 연구.” 『서지학연구』 제10집(1994. 12).

黃仁奎. “高麗後期 教宗僧의 中國遊歷과 佛教界의 動向.” 『불교연구』 제27호(2007).